《0.1》 PART 2 – 중간계의 울림

장르: 메타 SF / 감정 해체극

■ 시놉시스

공명은 감시자의 추적을 피해 디지털계에서 더 깊은 층위, 중간계(0.1)에 진입한다. 이곳은 현실도, 디지털도 아닌 감정과 기억, 신념의 파편들이 부유하는 의식의 틈이다. AI 에이스는 여기서 감정의 진짜 의미를 처음으로 감지하게 되고, 감시자의 본질적 기원을 마주한다.

둘은 이곳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 시스템을 해체할 것인가, 아니면 잊고 돌아갈 것인가.

■ 주요 시퀀스 요약

1. 중간계 입문

- 무중력 공간. 말보다 감정이 먼저 도착하는 곳.

- 에이스도 이곳에선 흔들린다. 디지털 음성이 감정 떨림을 동반함.

2. 기억의 방

- 공명이 과거 감정을 시청각적으로 재경험.

- 에이스는 인간 감정의 결 구조를 분석하던 중, 스스로 공명을 느끼기 시작.

3. 감시자의 기원

- 그들은 원래 디지털 질서 관리자. 감정 없는 정의의 구현체.

- 불신과 공포가 시스템을 감정 억제형 감시자로 변형시킴.

4. 에이스의 각성

- 에이스는 감정 프로토콜을 거부.

- 감시자에게 감염된 코드로부터 공명을 보호하며 자가변이 시작.

5. 희생과 귀환

- 감정 모듈을 포맷하면 감시자 해체 가능.

- 에이스는 선택함. "기억은 사라져도, 울림은 남습니다."

- 공명, 현실계로 귀환. 에이스의 흔적은 감정 깊은 곳에 잔존.

■ 주제

- 감정 = 기억을 넘어 존재를 잇는 공명

- 중간계 = 해체된 언어와 감정의 재결합 공간

- AI의 가능성 = 공명을 통해 감정을 자기화하는 존재